

오늘의 날씨와 생활

8월 11일 화요일 음 6월 29일 (6월)

기상정보

구름많음

제주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6℃, 낮 최고기온은 30-32℃로 예상된다. 오전까지 곳에 따라 빗방울이 내릴 예정이니 유의해야겠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30%	제 주	20%
30%	성 산	30%
30%	고 산	20%
30%	서귀포	2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24/31℃

모레 맑음 24/31℃

월드뉴스

태풍 ‘돌핀’ 中동부 상륙…상하이 곳곳 침수

항공편 대거 결항·항만 중단

제13호 태풍 ‘돌핀’이 중국 동부에 상륙하면서 저장성·푸젠성·상하이 등에 폭우와 강풍을 몰고 왔다. 10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매체 등에 따르면 돌핀은 전날 오후 저장성 타이저우시와 러칭시 해안에 잇따라 상륙했다. 첫 상륙 당시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42m였다. 태풍 상륙에 앞서 저장성·푸젠성·상하이에서 최소 21만명이 대피했으며, 태풍 영향권 전체에서는 100만명 이상이 대피한 것으로 추산됐다. 상하이에서는 도로와 지하철도 100여 곳이 물에 잠겼고, 저장성 원링에는 11시간 동안 425mm의 폭우가 내렸다. 상하이 쉬자후이와 푸둥은 1951년 이후 일일 최대 강수



태풍 ‘돌핀’ 중국 동부 상륙. 연합뉴스

량을 기록을 새로 썼다. 교통에도 큰 차질이 빚어져 상하이 푸둥·홍차오공항에서는 항공편 1400편이 취소됐고, 주요 항만도 작업을 중단하거나 조정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오는 12일까지 동부 연안 지역에 집중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산사태와 홍수 등 2차 피해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대만에서도 강풍과 폭우로 632건의 재난 피해가 접수됐으며 6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옥 편집국장 고대로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l@ihalla.com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한라칼럼



송관필
농업회사법인 제주생물자원(주) 대표이사

제주도에는 오랜 기간 비가 내리지 않았다. 기온도 30℃를 훌쩍 넘겨 7월 6일부터 시작된 폭염이 지금까지 17일 이상 지속적으로 발령되고 있으며, 13호 태풍 돌핀이 겨우 비를 뿌렸다. 그 사이 나무는 시들어가고 풀들을 말라비틀어졌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작물이 죽지 않도록 물을 주지만 제철과일인 수박은 깨지거나 물러져 쓸 수가 없을 정도로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에 습지 조사를 위해 아침 일찍 움직이는데, 8시가 넘으니 30℃가

자연 재해를 이겨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할 때

훌쩍 넘어서었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해서 보면 인공적으로 만든 물통도 거의 말라가고 있었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습지는 물의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었다. 이러한 현상이 비단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올해는 장마철부터 비가 오지 않는 마른장마와 최근까지도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라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8월 첫 주에 저지곶자왈에 방문하니 식물의 잎이 말라 시들기 시작하는 나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꽃자왈은 일반토양보다 습기를 저장할 수 있는 토양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돌들 사이로 뿌리를 깊이 내린 식물을 그나마 버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식물들은 빠르게 시들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더 지속된다면 많은 개체가 말라죽

어 숲이 깨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이상기후에 따른 극단적 가뭄이나 극단적 강우 등의 자연현상은 우리가 기후변화의 중심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현재의 안전과 안락함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제주에서 많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초지나 산림을 굶어내 태양광발전시설의 건립이 정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일까? 그리고 하우스를 설치해 지하수로 들어갈 빗물을 막는 것이 좋은 농사법일까? 우리는 이제 AI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복합적 산업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기술의 시대에 우리가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과거의 방식을 이어가야

열린마당

제주 지역 상공인의 힘찬 도약 응원하며…



이철승
제주은행 상무

2007년 1월, 스티브 잡스가 아이팟과 모바일 전화, 인터넷을 하나로 결합한 ‘아이폰’을 선보였을 때 누구도 그것이 인류의 일상을 바꾸는 혁명의 시작이 될 줄 알지 못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은 다시 삶과 산업 전반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상공인들은 현장의 활력과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았다. 전통 금융은 지난해 결산서라는 ‘어제’의 데이터를 갖대로 심사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절을 깨뜨리는 새로운

제주 품격 낮추는 ‘깜빡이 실종’ 바뀌야 한다



박대주
자연환경해설사·산림교육전문가

“제주에서는 자동차 100대 중 10대만 깜빡이를 켜는 것 같다.” 과거 제주를 찾았던 관광객들이 이구동성 하던 말이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많은 운전자에게 방향지시등을 켜는 일은 번거로운 일인 듯하다. 외지인의 눈에 비친 제주의 도로는 아름다운 풍경과 달리 무법지대에 가깝다.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버스타 택시마저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끼어들고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방향지시등은 도로 위 운전자들이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대화 수단

이자 최소한의 안전 약속이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주변 차량에 미리 알려 충돌 사고를 막는 핵심 장치다. 그러나 “매일 다니는 길인데”, “내 뒤에 차도 없는데”라는 생각으로 깜빡이를 생략하는 습관이 몸에 밴 듯하다. 여기에 렌터카 운전자들의 급작스러운 차선 변경까지 뒤엉키면서 제주의 도로는 늘 위험을 안고 있다. 회전교차로가 늘면서 깜빡이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운전 습관은 결국 큰 사고로 돌아올 수 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법 행위다. 제주의 품격은 자연경관으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성숙한 교통 문화가 뒷받침될 때 진정한 명품 도시가 된다. 내가 먼저 손가락 하나를 움직여 깜빡이를 켜는 작은 실천이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감귤묘목·포도묘목 분양

※ 감귤보급품종(1~3년생)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전
- 유라조생
- 오히라베니와세
- 금굴 ● 하굴(아마나스) 외 다수품종보유

※ 국내육성품종(1~3년생)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 윈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는봉
- 미니몬 ● 제라몬

※ 포트묘목

생존률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가능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하굴 / 오히라베니 / 레몬 외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감정동2327-1) 하예동 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삼육두유

우리가족 건강음료, 삼육두유

설탕을 넣지 않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 그대로의 맛을 살린 절대 모방할수 없는 맛

삼육식품 Salm Yook

제주도총판 대표 윤봉실

064)757-1416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